

### 참고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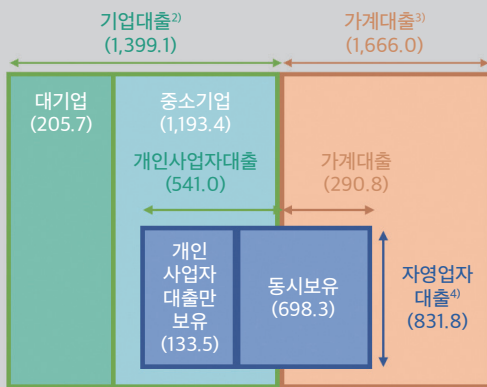
##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 현황 및 시사점

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이 큰 폭<sup>1)</sup> 증가하였다. 이에 가계부채DB<sup>2)</sup> 등을 활용하여 자영업자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.

### 자영업자대출 현황

2021년 3월말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831.8조원(차주 수 245.6만명)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541.0조원, 가계대출은 290.8조원이다.<sup>3)</sup>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기업대출의 59.5%, 가계대출의 49.9% 수준이며 기업 및 가계대출 총계(3,065.1조원)의 27.1%에 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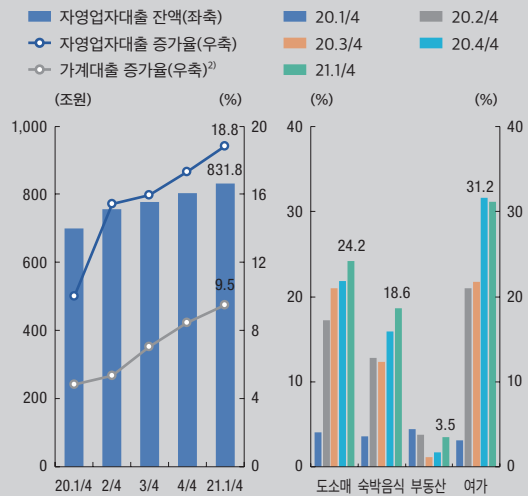
### 자영업자대출 현황<sup>1)</sup>



주: 1) 2021년 3월말 대출잔액 기준, ( ) 내는 조원  
 2)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(보험회사 일부대출 제외) 합산  
 3)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(판매신용 제외) 기준  
 4) 가계부채DB 기준  
 자료: 한국은행, 금융기관 업무보고서

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큰 폭 상회하여 증가하였다.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충격을 크게 받은 도소매, 숙박음식, 여가서비스 등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. 이에 도소매(20년 1/4분기 11.4% → 21년 1/4분기 12.2%), 숙박음식(7.7% → 7.9%) 등의 대출비중이 상승한 반면 부동산업의 대출비중은 하락(38.9% → 34.8%)하였다.

### 자영업자대출 증가율<sup>1)</sup> 주요 업종별 증가율<sup>1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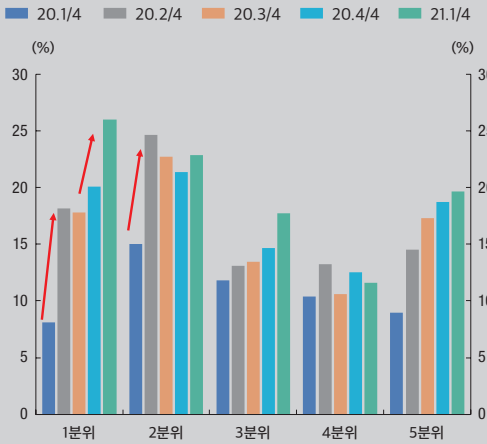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년동기대비  
 2)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(판매신용 제외) 기준  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소득분위별 대출 상황을 보면 저소득층이 코로나 19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. 코로나19 사태 직후 저소득층(1분위 및 2분위)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한 이후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.

1) 가계부채DB 집계(12년) 이래 부채규모 수준 및 증가율 측면에서 최고치를 기록(대출잔액 831.8조원 및 증가율 18.8%, 21년 1/4분기 기준)하였다.  
 2) 가계부채DB는 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이다.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였다.  
 3)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은 698.3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대출(831.8조원)의 84.0%를 차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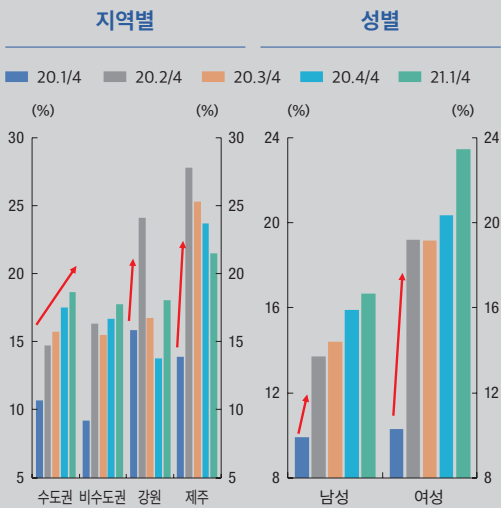
###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<sup>1)</sup>



주: 1) 전년동기대비  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지역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고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. 또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·제주지역은 코로나19 초기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점차 증가폭이 둔화되었다. 성별로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에 매출 충격이 집중된 가운데 동 업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자영업자의 대출이 큰 폭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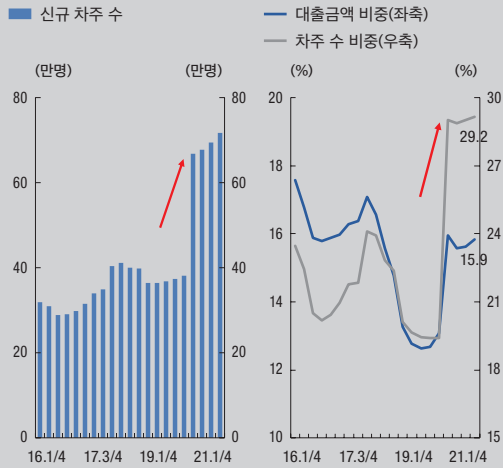
### 자영업자대출 증가율<sup>1)</sup>



주: 1) 전년동기대비  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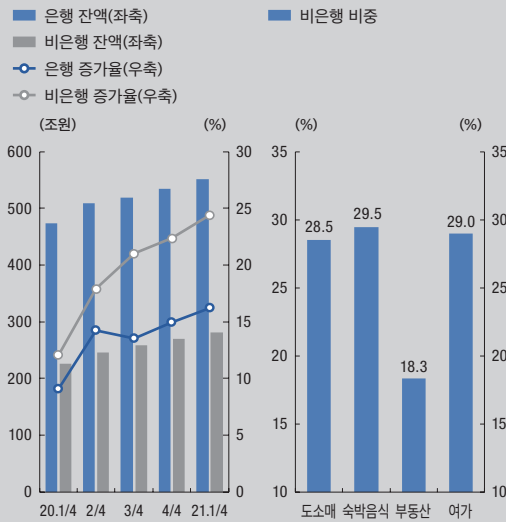
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/4분기 이후 신규 차주 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중 신규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였다.

### 자영업자 신규 차주<sup>1)</sup> 수      신규 차주<sup>1)</sup>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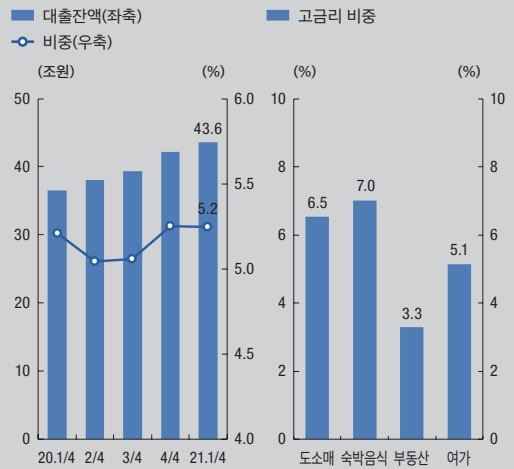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년동기 기준 사업자대출 잔액이 없는 차주  
 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금융업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. 비은행금융기관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숙박음식, 여가서비스 등이 높은 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
업권별 대출 잔액 및 증가율<sup>1)</sup> 업종별 비은행 대출비중<sup>2)</sup>

주: 1) 전년동기대비  
2) 2021년 3월말 대출잔액 기준  
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대출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대출<sup>4)</sup>의 비중이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 3/4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. 2021년 1/4분기말 자영업자대출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5.2%로, 숙박음식(7.0%), 도소매(6.5%), 여가서비스(5.1%)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고금리대출 잔액 및 비중 업종별 고금리대출 비중<sup>1)</sup>

주: 1) 2021년 3월말 대출잔액 기준  
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자영업자의 연체율(개인사업자대출 기준)은 신규대출 증가, 정부의 금융지원<sup>5)</sup> 등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줄어들면서 2021년 1/4분기 현재 0.24%<sup>6)</sup>로 낮은 모습이다. 코로나19 확산 직후 업황이 크게 부진했던 도소매, 숙박음식 등도 연체율<sup>7)</sup>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.

4) 저축은행·여신전문금융회사·대부업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분류하였다. 2020년 12월말 기준 가계부채DB상 자영업대출 차주의 업권별 가계대출 평균금리를 추산(20년중 이자상환액 합계/19년말 대출잔액)해 본 결과, 은행 3.1%, 비은행 4.7%(농·수협 3.8%, 새마을금고 3.7%, 저축은행 11.6%, 여신전문금융회사 9.0%)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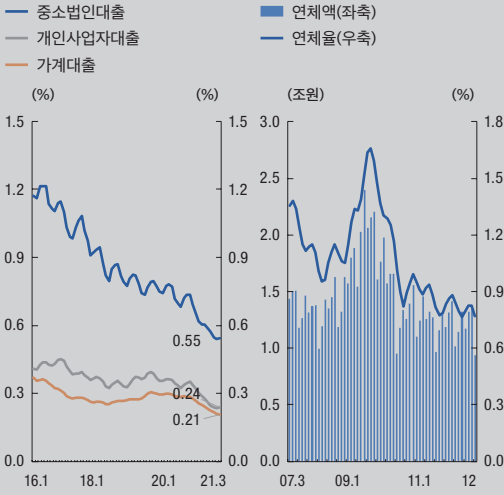
5) 2020년 4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상환유예가 시행되고 있다. 당초 2021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추가 연장(21년 9월 종료 예정)되었다.

6) 국내은행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(0.21%)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55%)보다는 낮은 수준이다.

7) 2021년 1/4분기 기준 도소매 0.23%, 숙박음식 0.26%, 여가서비스 0.31% 수준이다.

대출종류별 연체율<sup>1)2)3)</sup>

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<sup>4)</sup> 연체율<sup>2)3)</su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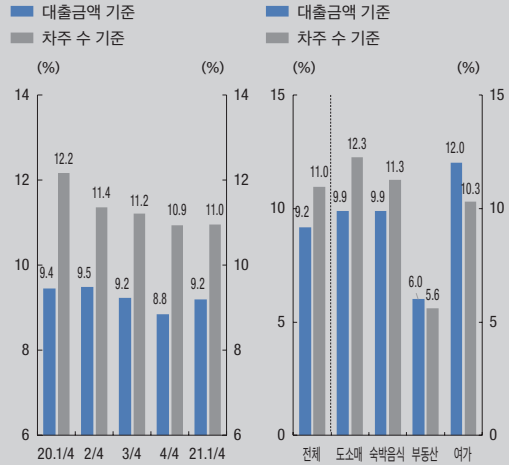
주: 1) 국내은행 원화대출금 기준  
 2)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 
 3) 3개월 이동평균  
 4)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기준

자료: 금융기관 업무보고서

자영업자 중 취약차주<sup>8)</sup> 비중은 2021년 1/4분기말 현재 차주 수 기준 11.0%, 부채금액 기준 9.2% 수준이다. 업종별로는 도소매, 숙박음식 등에 취약차주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, 부채금액 비중으로는 여가서비스 등이 높게 나타났다. 한편 취약차주 비중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<sup>9)</sup> 2020년 1/4분기말 대비 취약차주 수 및 부채 비중이 각각 1.2%포인트 및 0.2%포인트 하락하였다.

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

업종별 취약차주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(가계부채DB)

시사점

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출 비중 등이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대출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.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신규대출 증가, 정부의 금융지원 등으로 연체율 및 취약차주 비중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금년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, 정부 지원책, 축적된 가계의 구매력 등에 힘입어 대면 서비스 소비가 개선되는 모습이다. 이러한 경기흐름은 정부의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연체율 및 취약차주 비중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데다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<sup>10)</sup> 및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연체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총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. 정책당국도 자영업자대출의 업종·소득·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한 건전성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8)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지칭한다. 데이터 제약 등으로 본고에서는 가계대출 기관 수 및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등을 고려하여 다중채무를 추정하였다.

9) 저신용 차주 수 비중이 크게 하락(19년 4/4분기말 7.4% → 20년 4/4분기말 4.7%)한 데 주로 기인한다. 자영업자의 신용등급 결정시 연체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나 원리금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연체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저신용 차주 비중이 하락하였다.

10) 자영업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유예가 2021년 9월 종료될 예정이다.